

동연 공간부족 문제심각

복지회관, 동아리개편작업 등 대안 제기돼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의 공간부족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학생회관에는 4층에서 7층까지 60여개가 넘는 동아리들이 있는데 반해 동아리방 수는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매년 동아리 수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학생회관내 공간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동연이 지난주 대표자 회의에 상정한 안건중에 한가지를 보면 '학생회관 5층과 7층 화장을 개조해 방을 만들자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학생회와의 논의과정속에서 5층은 처음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긍정적인 협의를 보였으며 7층의 경우 화장은 그대로 두고 복도

공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계속적으로 공간부족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동연에서도 대처방안으로써 △성격이 비슷한 동아리는 2개이상 공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이 부재하거나 미흡한 동아리 박탈(올해의 경우 한국정치연구회, 일과사랑, 한겨레사랑모임, 목화회)등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공간문제에 대해 대다수 동아리인들은 92년 완공예정인 학생

복지회관 건립에 기대를 걸고 있

으며 동아리들의 재개편작업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생회관에도 문리대, 정경대등 단과대학의 강의실부족

등 공간확보문제가 많은 학생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요즘을

공간문제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인다.

한편 26일 마감된 신규동아리

등록에 광고동아리인 copy 올림과

Music Line이 새로 동연에 가입했다.

이에 대해 학생처 동아리담당

김용보선생은 "동아리 공간부족

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방을 설치

할 경우 심한 악취가 예상돼 위

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

다.

정경대중축의 경우 현재 정경

대는 강의실이 많이 부족, 학생

의 수업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

고 있는 실정이다.

산디과 3학년 수업 재개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수업이

재개됐다.

강의실 확보를 못해 그동안 수

업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산업디

자학과 3학년은 임시강의실로 산

업대학 교무실 자리와 111강의실

이 확보됨으로써 수업이 재개되

게 된 것이다.

한편 산업디자인학과는 산업대

학 축측이후 '지하2개와 1층2개

의 강의실을 전용강의실로 만들

어준다는 것을 편신한(산업대·농

학) 산업대학장과 7개학과 학과

장이 모인가운데 구두약속 받았

다.

노조 임투승리 수련회

본교 노동조합은 오는 3, 4일

양일간에 걸쳐 '91임투승리와

복직쟁취를 위한 대의원·집행부

공동수련회를 가진다.

4월 중순쯤 진행될 예정인 임

투협상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결

의를 다질 이번 공동수련회에는

장병기 전노조위원장의 원직

복직 쟁취를 위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학자주 4일부터 M·T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학원자주

화주위원회(예산결산심의위원

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인권

보위위원회로 구성)는 오는 4일부

터 1박2일간 전체 M·T를 갖는다.

이번 전체 M·T에 상정된 안건

은 3월 학원자주화 사업 평가와

4월 사업전망 및 91학년도 학원

자주총노선을 논의하게 된다.



수원 대의원총회 개최 3일, 사업보고 및 총대의원장선거

수원캠퍼스 대의원총회건설회

위원회는 오는3일 5시 체육교

육관 시청각실에서 대의원 총회

를 개최한다.

각 학년 과대표를 대상으로 개

최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총대의

원장선거와 90년대 총대의원회

사업보고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총대의원장 선거는 단독후보일

경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찬성

을 통해 당선되며 경선일 경우

과반수출석에 다수득표자가 선출

되게 된다.

후보는 6학기이상 필한자, 20년

이상 과대표의 추천을 받은자에

한하여 출마할 수 있다.

한편 대의원회 건설회는 지난

20일 구성되어 권속식(체육·4)군

이 작년 상임위원3인의 추천을

통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건설회는 현재 산업대를 제외

한 각 단과1인씩 5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총회인준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해설】 총대의원회는 총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두며 산하에 상

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총대의원회는 학생회 기

구 인준, 사업에 대한 감사, 총학

생회장 선거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총대의원회의 출범은 예

년과는 달리 많은 진통을 보일듯

하다.

그 이유는 바로 총학생회의 기

본 정책기조중 전체학생대표자회

의(이하 전학대)건설이 있다는

것이다.

총학생회에서 일컫는 전체학생

대표자회의는 기존 회계계의 골

간인 과대표를 기본으로 하여 과

학생회장, 단과학생회장으로 구

성된다.

총학생회에서 일컫는 전학대

회와 총대의원회의 관계는 현재

어느구가 제대로 대의체제 역

할을 수행해 나갈지는 미지수이

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전학대

회와 총대의원회의 관계는 현재

어느구가 제대로 대의체제 역

할을 수행해 나갈지는 미지수이

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전학대

회와 총대의원회의 관계는 현재

어느구가 제대로 대의체제 역

할을 수행해 나갈지는 미지수이

다.

교수협 제11호 '會報'

4월초순 발행예정

본교 교수협의회는 4월 초순경

에 기관지 '會報' 제11호를 발행

할 예정이다.

이번호에는 새롭게 구성된 회

장단과 특위등 기구소개와 교수

동정, 수서사건과 폐물문제에 대

해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교수협의회는 지난 30일

회장단과 특위(학사위원회, 예산

결산위원회, 권·복지위원회) 연

석회의를 갖고 사업전망과 제반

교수협의회의 관련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용성총련 대의원회 사수대회 28일, 등록금 투쟁보고도

지난 28일 수원캠퍼스 외국어

교육관앞 민주광장에서는 2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가운데 총학

생회 주축로 '등록금 투쟁보고 및

용성총련 대의원대회 사수 결의

대회'가 있었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집회는 1부에서 등록금 투쟁보고

와 등록금투쟁평가, 앞으로의 과

제가 제시되었으며 2부에서 수서

비라·조작선거 규탄 및 노조권의

애국운동 단합에 대한 규탄, 대의

원대회 사수를 위한 결의문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고재건

(기계공·3) 부총학생장, 학원자

주와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앞으

로의 파제제시를 통해 등록금투

쟁을 기반으로 자주학원을 건설

하고 이를 위해 학원자주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가 있은후 약 1

백50여명의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석용(토

목공·2)군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수원, 컴퓨터특강

인복위주최 3개월간

수원캠퍼스 인민복지위원회(이

하·인복위)는 오는 8일부터 7월6

일까지 3개월간 학생회관 3층에

서 제1기 컴퓨터 실기특강을 실

시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0분간 수업을 진행하게될 이번

특강은 A반에서H반까지 시간대

별로 8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

며 각반마다 40명씩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한편 접수기간은 지난 20일부

터 오는5일까지이고 접수장소는

인복위 사무실이나 2호관 학생식

당내 ACE컴퓨터 매장에서 접수

를 받으며 수강료는 월 2만원씩

3개월씩 6만원을 일시불로 받

는다.

계속적인 집속을 통해 성사된

이번 집회활동은 차대생 10여명

이 참가하는 것으로 노동자·학생

연대와 노조활동에 기여할 것

으로 보인다.

김선경(국문·4)총학생회 노동

교심위 강사선임 난항

행정학과, 학생 의견차이로 협상결렬

학교와 학생간의 의견차이로

진통을 겪고있는 '북한정치의 이

해', '정치경제학 입문' 등 수원

캠퍼스 사회과학과 4강좌에 대한

강사선임문제에 대한 협상이 다

시 결렬되었다.

교육과정심사위원회(이하 교심

위) 지난주 현준민(행정·사회과

학대 학장)과의 수차례 만남을 통

해 '북한정치의 이해'의 경우 교심

위 추천강사에 의한 전면강의를

실시한다는 것과 '정치경제학입

문'은 개설된 두개강좌를 학교측

과 교심위 추천 강사가 각각 한

강좌씩 강의를 한다" 그리고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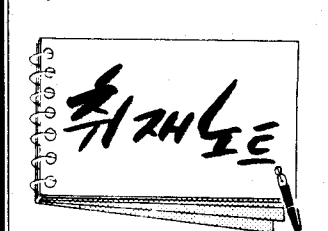
국정치론과 민주주의론'의 경우

각각 한강좌씩 개설되어 교심위

추천강사와 학교측 내정강사가

동시에 강의를 한다", '수강신청

변경은 사회과 과목에 한하여 내



◇No나랏님 전신서

No나랏님 아직도 민중탄압에

여념이 없으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No나랏님의

뛰어난 영도력(?) 정말 놀랍

수서리리 은폐기위해 지방자치

제 기습선거 실시하고 그결과

나랏님 집안이 압승으로 장식하

여 벌어진 일이 다름아닌지

는다니, 마땅히 축하드려야겠

지만, 명백한 정치판 불신인 50여

%의 투표율을 보고도 축하드렸

다간 맞아 죽을가 두렵소

◇4월이 오면

캠퍼스 구석구석마다 졸음에

겨운 듯 마스한 햇살을 한몸에

받으며 깨끗한 잔디밭을 찾다

니는 뽕뽕들

저 불타는 듯한 No나랏님의

정권욕, 가진게 돈 밖에 없어

최종하다며 힘주듯 다니는 자

바늘은 날로 기세를 부리는데

뽕뽕들, 죽음으로 불의에 항

쟁했던 그이수령 선생의 불굴의

투쟁과 4·19의 의혈들을 상기

◇●뽕뽕들 속에 커 온 주보

요즘 뽕뽕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각종 물가, 하숙비, 자취

비, 음식비, 게다가 등록금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고

향에 갇힌 부모님 났 뽕뽕이 없

다고

알고보니 본보에 실린 모 기

사내용이 메스컴을 오르내리자

갑자기 뽕뽕들 관심이 쏠어진

것

그동안 소원했던 학생독자들

의 관심이 되돌려져 노트리 고

맴기 그지없이 더욱더 뽕뽕들

다정해졌소만, 대학주보는 바로

뽕뽕들 등록금으로 만들어지는

바 학생주주 여러분의 관심과

비판이 더 필요함을 아시는지

요

◇●뽕뽕들은 뽕뽕이다

수원캠퍼스 자주광장 계단아

래에 멧치른 몸통이 셋이 내게

의 발을 하얗도 향한 채 태평하

게 나란히 누워 뽕뽕을 자새고

있다는데

사연인즉, 지난 봄비와 더불어

어 찾아온 바람에 대자보판이

넘어져 망치된 상태라고

뽕뽕들이여! 여러분의 귀와

눈이될 앞날이 뒤집혀져 있어

고 거들며 보지도 않다니, 이런

무관심이 우리의 배운터를 퇴보

시키는 가장 큰 요인임을 아

시는지

46명 승진교수 명단

▲교수 △김정재(문